

## ‘2014년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참가기

# 노인인권 위한 ‘노인법·임의후견’ 관심 가져야!

이 남 철 ■ 법무사(서울중앙회)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상임이사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세계적인 포럼인 ‘세계성년후견대회’가 지난 5월 28일~30일 미국 워싱턴 DC에 개최되었다. 성년후견본부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의 참가기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세계적인 흐름과 동향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 국제후견네트워크 주최, 18개국 발표

참가신청이 제대로 됐다. 여권, 영어사전, 뭐 빠뜨린 것 없나. 혹시 교수님은 준비를 다하셨나. 노심초사하여 걱정도 팔자인가 보다.

대한법무사협회 산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는 부이사장 이영규 교수와 필자, 이렇게 두 사람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14 세계성년후견대회’(2014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에 파견하였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갈아타는 곳 디트로이트를 거쳐 최종 도착지인 워싱턴까지는 약 15시간이 걸렸다.

세계성년후견대회는 2010년 일본 요코하마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개최되는데,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개최되었다. 미국 국가후견네트워크(NGN)와 국제후견네트워크(ING)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국의 후견관계재단과 단체들이 후원하였다.

제1회 대회에서는 장애인권리에 관한 ‘요코하마 선언’을 발표하는 성과가 있었고, 2012년 제2회 대회는 호주 멜버른에서 ‘성년후견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주제로 하였다.

이번 제3회 대회는 “성년후견인의 우수성을 담보하는 유망사례”라는 주제로 한국, 미국, 독일과 오스트리아,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18개국의 제도에 대한 소개와 후견에 관한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견한 김희진 부산지방법원 판사, 한국성년후견학회의 제철웅 회장과 박인환, 김현진 교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파견한 부이사장 이영규 교수와 필자, 이렇게 총 6명이 참석을 하였다.

### 정상인과 직장근무 장애인 여성 경험담, 큰 감동

첫째 날은 국제후견네트워크(IGN)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Jochen Exler-König 박사의 기조연설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하에서의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의 서로 다른 접근방식과 제도개혁에 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시작으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되었다.

주로 가디언의 자질과 모니터링의 문제, 의존상황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치료와 대리의 문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인권의 문제 등이 발표되었다.